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0일 (음력 2월 25일) 화요일

전남경찰, 장흥군 군정 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경찰이 장흥군정 간부급 공무원의 개인 비리는 물론 인사와 관급자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장흥읍 장흥읍사무소와 모 건설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 유출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들이 관련 서류 등을 빼돌리는 바람에 큰 성과

장흥읍사무소 건설업체 압수수색...정보 유출 의혹도

감독 공무원 각종 사업 압력 행사...윗선 개입도 추궁

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장흥군정 간부급 공무원이 조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군청 발주 대형공사장 낙찰업체로부터 특

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같은 행위가 장흥군에서 조직적으로 윗선이 개입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장흥건설업체 사장은 "현 군수가 재임하는 4년 동안 소

위 군수 자신의 라인이 아닌 업체는 수의 계약을 단 한건도 주지않고 자신들의 측근 회사에만 수의계약과 하도급까지 집중적으로 몰아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인사비리와 조경수 식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이런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올드보이3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종합선생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향해 '수준이 낮은 분들이 자기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된다. 국가지적증을 줘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전에 대해 '올드보이의 귀환이다'고 평가하는 패널들에 대해 불편함을 비춘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을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떤 폐기처분 한다는 지식의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듣기가 너무 거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인제 상임고문이 충남지사 후보로 공천되자 언론과 증편에서 후보들을 '올드보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홍문표



전여욱



홍문표

보해, 전라도 정도천년 기념주 공모 '천년에(愛)' 선정



전국서 6000여건 아이디어 접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9일 전라도 정도천년을 기념해 출시할 기념주 공모전에 전국에서 6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결과 베이징 공모전에는 김영복씨가 신청한 '천년에(愛)'가, 브랜드 디자인 부문 대상은 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과 이준혁씨의 '청년해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천년에(愛)'는 정도천년을 축하하는 기념주가 전라도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 모두에게 사랑받는 술이 되길 기원한다는 뜻을 담았다.

'청년해로'는 천년이 가도 청년이고 싶다는 의미를 익살스런 그림과 글씨체로 표현했다.

김진아 심사위원은 "보해 공모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6000여명이 응모해 천년 기념주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천년과 전라도라는 키워드로 모인 수많은 아이디어를 잘 조합해 전라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운명의 1주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레이스 본격화

강기정·양향자·이용섭, 각각 정책 발표·인물 영입 등

6월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와 결선투표 경선을 확정 등 숨 가쁜 1주일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후보 3인의 경선레이스도 본격화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예비후보 측은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성장 더 큐브(the CUBE)'를 중심으로 취합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날 시민금융·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시민생활 살림은행'을 설립하고, 고금리 대출피해자 대상 전환대출 실시 등을 공약했다.

앞서 휴일인 8일에는 최강민(최영호·강기정·민형배)주 단일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 출범식을 광주 서구 삼촌동 통합캠프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후보와 민형배, 최영호 공동선대위원장, 김영집·김광진 통합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노동일·여하영·최병민·홍경표·노영복·김원중 상임위원장 등으로 꾸려졌다.

양향자 후보는 시의회 기자회견 통해 "이번 선거는 미래 대 과거, 새로운 대 낡음, 변화 대 기득권의 싸움"이라며 "광주는 미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하고

답은 양향자"라고 밝혔다.

승리 방식으로는 2002년 총선 구도 싸움을 예로 들었다. "2002년, 광주는 이인제로는 이회창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노무현을 택했다"고 말했다. "고졸후보라는 우려에는 "광주는 목포상고 출신 김대중, 부산상고 출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광주의 변화를 원한다면 광주여성 출신 양향자를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17개 광역단체장 중 3곳서 여성이 경선중인데 민약한 군데가 나온다면 광주의 선택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용섭 후보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을 성공리에 수행한 이병훈 전 예비후보를 캠프 공동선



거대책임위원장 겸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경선 승리를 위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정전문가인 이 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 광주민의 고유함과 전통문화예술을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

공식행사 4.14(토) 14:00~

느림의 타종식
오색가래떡 나눔잔치
나비아 청산가자

©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힐링토크(11시~12시)
식전공연 - 여행스케치 외(1시~2시)

2018. 4. 7(토) ~ 5.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일원

2018 원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018

2018. 5. 4(금) ~ 5. 7(월)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청해진유적지 일원

- 5.4(금) 완도군민 화합 한마당. 군민화합 가왕 선발전
- 5.5(토) 218m 해조류김밥 만들기. MBC TV 축하쇼
- 5.6(일) 김제동 · 이승환의 라이브 Show
- 5.7(월) 전남 도립국악단 특별 초청공연